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정현  
전화 043-299-5204

**보도자료**  
2024. 7. 26.(금)

제 목

**적극적 사법통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2년 전 형제간 상해치사 사건의 실체 규명하여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2. 6.경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던 친동생 B의 전신을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친형 A를 상해치사 혐의로 오늘(7. 26.) 구속기소 하였음
-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소견임에도 B가 자해하였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B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웃 주민 상대 탐문 등 재수사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송치요구, 보완수사요구 등 적극적 사법통제를 한 결과,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A를 구속하였음
- 검찰은 구속송치 후, 현장검증을 다시 실시하여 집안의 혈흔을 추가 발견하였고 혈흔의 형태분석, DNA 감정 등을 통해 A가 집안에서 매우 강하게 B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구타하였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였음
- 또한 검찰은 A의 1년 간 주류 구매내역을 확보하고, 이웃 주민 등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가 당시 알코올중독 수준에 이르렀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 습성이 나타나며, B의 심리 상태와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상황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하였음
- 청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통제 및 경찰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사건이 만연히 종결되거나 암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음

# 1

## 피고인 및 피해자

- 피고인 A(남, 63세), 피해자의 친형
- 피해자 B(남, 59세), 피고인의 친동생

# 2

## 공소사실 요지

- 평소 정신적 장애를 앓던 어머니 및 B에 대한 스트레스로 습관적으로 음주하고 B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22. 6. 2. 22:04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B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강하게 때리고, '22. 6. 3. 05:13경 마당에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려 뇌출혈 등 다발성 손상을 가하여 같은 날 오전경 사망에 이르게 함 [상해치사]

# 3

## 수사 경과

- '22. 6. 3.           경찰, 변사 발생 통보
- '22. 6. 23.        국과수, 부검 결과 회신(타살 소견)
- '23. 7. 1.         경찰, 불송치 결정(유력 용의자인 A의 변소 배척 증거 없음)
- '23. 7. 19.        **검찰, 재수사요청(①주변인 추가 탐문, ②A의 진술분석, ③ 법의학자 등 전문가 소견 추가 청취 등 요청)**
- '24. 4. 15.        경찰, 재수사결과 통보(재수사요청 사항 이행 불가 통보)
- '24. 5.            **검찰, 기록송부요청 및 사건송치요구, 기록 검토 및 경찰 협의 후 보완수사요구**
- '24. 7. 1.~2.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법원, 구속영장 발부
- '24. 7. 9.~25.    검찰, 구속송치 후 보완수사
  - A와 주요 참고인 조사, 범행장소 현장검증 및 현장 내 혈흔 감정 등
- '24. 7. 26.        검찰, 구속기소

### ① 장기간 사건 방치 및 수사 부실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상황

- 경찰에서 변사사건 발생 이후 1년 간 A의 신체, 의복, 휴대전화, 주변 CCTV,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하여 대부분의 객관적 증거가 멸실되었고, 검찰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9개월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행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모친이 '24. 3.경 사망하였음
- 또한, 범행장소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3. 5.경부터 주민 이주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는 등 보완수사가 더 늦추어졌더라면 현장 보존조치 되지 않아 본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상황이었음

### ② 변화된 제도 내에서 철저한 사법통제 및 경찰과의 상호협력 실시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찰은 ①부검결과가 타살 소견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여러 부위에 심하게 나타나 있는 점, 상해 정도를 감안 시 폭행 또는 비명소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이웃 주민을 탐문하는 등 재수사요청을 하였고,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진하여 ② 기록송부요청 및 사건송치요구, ③재수사요청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④보완수사요구 등 변화된 사법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사법통제를 하였으며,
  - 그 결과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A를 구속하는 등 사건의 암장을 막을 수 있었음
- 보완수사요구 후 교체된 경찰 수사팀과 압수수색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송치 후에도 충북도경 과학수사계 등과 함께 현장검증하여 혈흔반응 검사, 형태 분석, DNA 긴급감정 등 과학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실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과 상호협력함

### ③ 피고인 구속송치 후, 과학수사 등 충실한 직접 보완수사

- 송치 후, ①철거 직전인 범행장소를 현장검증하여 비산혈흔을 발견하고, 비산 형태를 분석하여 A가 B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가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②A의 주류 구매내역을 확보하여 범행 전 한 달 동안 막걸리 93병을 구입하는 등 알코올중독 수준이었음을 확인
- 그 외 대검 통합심리분석, DNA 추가 감정, 부검의 추가 감정, 의료자문위원 자문, B의 기초생활수급비 계좌 확인, 참고인 조사 및 탐문 등을 통해 ①A 진술의 신빙성 탄핵, ②B의 멍과 상처의 발생시기, ③A와 B의 평소 관계 등 A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추가 확보하였음

## 5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또한,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통제 및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사건이 만연히 종결되거나 암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음 ■■■